

소비자 리서치 전문기관

Consumer Insight

컨슈머인사이트 보도자료

(Travel Report `20)

기 관	컨슈머인사이트	이 메 일	kimmh@consumerinsight.kr
문 의	김민화 연구위원/Ph.D	연 락 처	02) 6004-7643
배 포 일	'20년 9월 24일 (목) 배포	매 수	자료 총 3매

추석연휴 여행, 얼마나 자제 할까?

- 컨슈머인사이트, 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 결과 분석
- 올해 추석연휴 중 국내 숙박여행 계획 9.5%
- 연휴 기간 4일로 짧았던 작년(10.3%) 보다 낮아
- 최장 10일 연휴였던 '17년 28.1%의 1/3 수준
- '17년은 고속도로 및 관광지 무료로 장려, 금년은 이동제한 권유
- 숙소/교통편 등 상품 예약 비율 낮아 실제 여행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

코로나 확산 우려로 추석 연휴에 여행과 성묘를 자제해 달라는 소리가 높다. 추석연휴 기간 중 숙박여행 계획률은 작년보다 다소 낮았는데, 올 연휴가 5일로 작년보다 하루 길고 해외여행도 불가능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임을 알 수 있다. 또한 여행계획자 중 목적지 미정인 경우가 많아 실제 여행으로 이어질 확률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.

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의 '주례 여행행태 및 계획조사'(매주 500명, 연간 2만 6000명)에서 추석연휴 기간 관광/휴양 목적의 숙박여행 계획에 대해 분석했다. 2017년 이후 4개년 결과를 비교했으며, 추석연휴 직전 2주~5주 응답자를 대상으로 계획 중인 여행이 추석연휴(주말, 공휴일 포함) 중 하루라도 포함되어 있으면 '추석연휴 여행'으로 정의했다.

■ 코로나 19로 국내여행 심리도 크게 위축

올해 추석연휴 직전 2주~5주(8월 4주~9월 2주)간의 조사에서 3개월내 1박 이상의 국내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1.7%였다[그림1]. 지난 3년간 동기간대에 70% 내외였던 것을 감안하면 국내여행 시장 수요가 크게 위축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. 해당 기간에는 사회적거리두기 2.5단계 시행 시기가 포함되어 있으며, 이후 정부-지방자치단체에서 이동 제한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사회적 분위기 영향이 크다.

■ 추석연휴 5일간 여행계획률 9.5%... 연휴 4일뿐인 작년 10.3% 대비 소폭 낮아

공식 추석연휴 기간(9월 30일 수요일~10월 4일 일요일) 5일간의 국내여행 계획 보유율은 9.5%였다. 이는 연휴가 4일이었던 작년과 비교해 0.8%p 낮고, 연휴 기간 및 시기가 비슷한 '18년보다는 1.8%p 낮다. 역사상 추석연휴(10일)가 가장 길었던 '17년 28.1%와 비교하면 1/3수준이다.

2017년은 사상 최초 10일간의 연휴라는 이슈가 뜨거웠고, 처음으로 고속도로 이용료 및 관광지 입장료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촉진 정책이 수반되었던 특수성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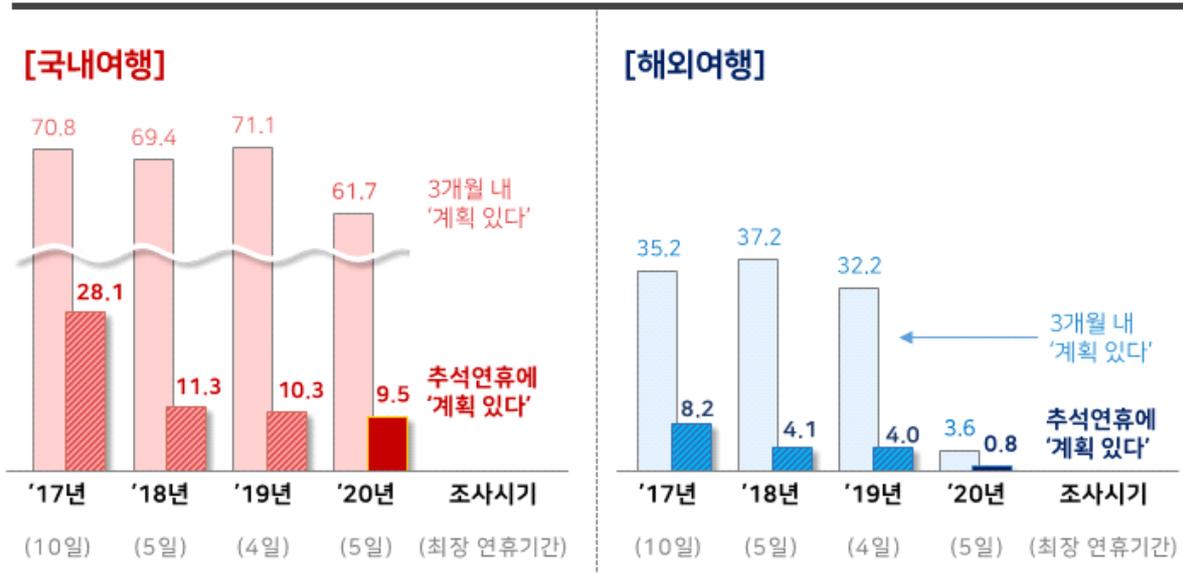
계층별 변화를 추석연휴 기간 등이 유사한 '18년과 비교하면, 50대 이상(-3.1%p)과 여성(-2.5%p)에서 국내 여행계획이 가장 많이 줄었다. 반면 30대는 전 연령대 중 유일하게 늘었는데(+1.9%p), 막내자녀가 초등생 이하인 가구의 계획을 증가와 연관이 깊다(+1.8%p).

'20년 동기간대 3개월내 해외여행 계획 보유율은 3.6%, 추석연휴 중은 0.8%에 불과했다. 지난 3년간과 비교하면 거의 1/10로 줄었다고 할 수 있다. 기본적으로 해외여행은 불가능하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.

[그림1] 추석연휴 국내 및 해외여행 계획 보유율

추석연휴 여행 계획

[단위: %]



Q.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/ Q. 계획하고 계신 '000'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기해 주십시오.
 주1) 표본 수 매년 2,000명, (매년 추석 직전 2~5주간인 각 4주간 조사)
 주2) 계획률은 설문 참여자 전체, 계획중인 여행 기간은 여행계획 '있음' 응답자 대상으로 질문함.
 주3) '추석연휴에 계획 있다'는 여행기간에 추석연휴(공휴일, 주말 포함)가 하루라도 포함된 경우임.

■ 올 추석여행의 가장 큰 특징은 '불확실성'

추석 여행의 출발일은 연휴 시작인 9월 30일(27.2%)과 추석 당일인 10월 1일(24.5%)에 쏠려있고, 도착일은 연휴 마지막 이틀에 집중된다(3일 29.7%, 4일 25.5%). 계획 중인 여행 기간은 평균 2.67일로 최근 4년 중 가장 길었는데, 이는 장기간 해외를 여행했던 층이 국내로 돌아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.

눈여겨 봐야할 것은 '불확실성'이다. 교통편이나 숙박 상품을 구매한 비율은 34.9%로 전년 동일기준 대비 8.0%p 낮고, '시기만 정함'은 26.4%로 4.5%p, '목적지만 정함'은 13.2%로 2.4%p 높다. 추석여행을 갈 마음은 있지만 예약으로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다. 여행계획을 취소할 이유가 많다는 점에서 '20년 추석연휴가 혼잡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.

[별첨] 추석연휴 국내 및 해외여행 계획 요약

		2017년	2018년	2019년	2020년
배경	추석 명절	10/4 (수)	9/24 (월)	9/13 (금)	10/1일 (목)
	공식 연휴기간 (주말, 공휴일 포함)	10일 : 10/3 (화) ~ 10/9 (월)	5일 : 9/22 (토) ~ 9/26 (수)	4일 : 9/12 (목) ~ 9/15 (일)	5일 : 9/30 (수)~10/4 (일)
	이슈	임시공휴일 포함	2일 연차 사용시 최장 9일	-	2일 연차 사용시 최장 9일
조사 기간 (총 4주 : 추석 직전 2~6주)		8월 4주 ~ 9월 3주	8월 3주 ~ 9월 2주	8월 1주 ~ 8월 4주	8월 4주 ~ 9월 2주
국내 여행	3개월 내 계획 보유율 (%)	70.8	69.4	71.1	61.7
	추석기간 여행 계획 보유율 (%)	28.1	11.3	10.3	9.5
	여행 기간 (평균, 일)	2.55	2.56	2.48	2.67
	출발 일 (%)	10/6 (20.4)	9/22 (25.7)	9/12 (49.3)	9/30 (27.2)
		10/5 (12.7) 9/30 (12.3)	9/23 (21.5) 9/25 (13.2)	9/14 (15.1) 9/13 (13.2)	10/1 (24.5) 10/2 (14.7)
도착 일 (%)	10/9 (20.8)	9/26 (32.6)	9/15 (45.2)	10/3 (29.7)	
	10/7 (15.8) 10/8 (14.0)	9/25 (19.5) 9/24 (15.9)	9/14 (33.3) 9/13 (8.8)	10/4 (25.5) 10/2 (14.4)	
해외 여행	3개월 내 계획 보유율 (%)	35.2	37.2	32.2	3.6
	추석기간 여행 계획 보유율 (%)	8.2	4.1	4.0	0.8

Q. 3개월 내 1박 이상의 일정으로 여행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? / Q. 계획하고 계신 'OOO'여행 시기를 달력을 보고 표기해 주십시오.
 주1) 계획률은 설문 참여자 전체, 계획중인 여행 기간은 여행계획 '있음' 응답자 대상으로 질문함.
 주2) 매년 추석 직전 2~5주간의 조사 결과이며(총 4주), '추석연휴에 있다'는 여행기간에 추석연휴(공휴일, 주말 포함)가 하루라도 포함된 경우임.

이 결과는 컨슈머인사이트 소비자동향연구소가 매주 여행소비자 500명(연간 2만 6000명 조사)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'주례 여행 행태 및 계획 조사'를 바탕으로 한다. 매주 업데이트되는 조사 결과와 분석 리포트는 www.consumerinsight.kr/travel에서 볼 수 있으며, 2018-2019년 조사 결과를 요약한 자료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. ([리포트 다운로드 받기](#))

Copyright © Consumer Insight. All rights reserved.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For-more-Information

김민화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위원/Ph.D	kimmh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43
최수정 컨슈머인사이트 대리	choisj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27
조혜원 컨슈머인사이트 연구원	johw@consumerinsight.kr	02)6004-7631